

날짜: 5786 년, 10 월 4 일 (2025 년 12 월 24 일)

토라 문: Vayigash (나아가다)

주제: Spirit Revived by Sight (본 사실에 의하여 소생 된 영 (רוח 루아흐))

창세기 45 장 26-27 절은 요셉의 생존 소식이 야아콥께 전달되는 장면을 기록하면서, 단순한 정보 전달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신성학적인 반응을 묘사합니다. “요셉이 살아 있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라”는 보고를 들었을 때, 야아콥은 이를 믿지 못하고 그의 마음이 “얼어붙는다 (יָבֵשׁ לֵב; *va-ya-fog libo*).” 그러나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는 순간, “야아콥의 루아흐 (영)이 다시 살아난다.” 이 대조되는 상황은 말과 눈의 시각, 귀로 듣는 정보와 실제적 체험, 정보의 전달과 연속력 사이의 성경에 입각한 깊은 긴장력을 드러냅니다.

미드라시는 야아콥의 불신을 단순한 회의나 감정적 반응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베레쉬트 라바 94:3 은 야아콥의 상처가 말을 통해 형성되었기 때문에 말로는 치유될 수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요셉의 죽음에 대한 야아콥의 확신은, 피 묻은 옷과 형제들의 거짓 보고라는 ‘말’에 의하여 굳어졌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통로—언어—를 통해 전달된 기쁜 소식은 오히려 그의 내적 방어를 더욱 강화시킵니다. 구절에서 “그의 마음이 무뎠다”는 표현은 단순한 감정적 충격이 아니라, 생명력 자체가 수축되어 움직임이 없는 무감각한 상태를 가르칩니다. 야아콥은 그 내면의 간절한 희망이 다시 배신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고 귀로 들었던 말을 믿지 않으려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탈무드 역시 이 상태를 영적 차원에서 설명합니다. 페사힘 119b 및 메길라 16b 의 전통에따르면, 깊은 슬픔은 *성령 (רוח הקודש)*의 임재를 방해한다 기록합니다. 야아콥은 요셉을 잃은 이후 22 년 동안 예언적 영감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으며, 이로 인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 관하여, 단순한 정보나 논리적 보고로는 그의 내적생명이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탈무드적 관점에서 볼 때, 생명력이란 듣고 뇌에 저장하는 기억인 개념적 인식 뿐만이 아니고, 육신안에 내재화 되고 실체화 되어진 진실을 통해서 온전히 되돌아옴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드라시는 왜 요셉의 수레가 말로는 설득하지 못했던 것을 성공시켰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왜 하필 ‘수레’였는가? 베레쉬트 라바 94:3 에서는 히브리어 עגלה (아갈라: 수레)가 ערופה (아갈라 아룻화: 미해결 살인 사건에서 행해지는 규례에 관한 계명)와 언어적으로 연결됨을 주목합니다. 이 계명은 요셉이 형제들로 인하여 열방에 팔려 나가시기 직전, 아버지 야아콥과 마지막으로 함께 공부하셨던 토라의 주제였다고 기록합니다. 요셉이 아버지께 보냈던 수레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그동안 중단되었던 토라 공부의 연속성을 상징하는 그 두분만이 아시는 부자간의 암호였습니다. 이 표식은 오직 요셉만이 보낼 수 있는 것이었으며, 야아콥은 이를 통해 아들이 육신으로 살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와의 언약과 그의 빛, 생명인 토라 안에서 인간의 본분인 계명을 연속히 지키며 살아 있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조하르(Zohar I:221a)는 이 장면을 더욱 신비로운 이해의 층을 열며 다음과같이 해석합니다: 요셉은 언약의 흐름을 전달하는 예소드(נוֹסֵף, Yesod; 기반/중생)의 인격적 구현이며, 야아콥은 티페레트 (תִּפְעֻלָּת / Tiferet; 장식/아름다움/영광, 곧 여호와와 인애하심과 공정의 속성이 완전한 중심축에서 만남), 곧 이스라엘의 심장이다. 곧 수레는 단순히 야아콥의 몸을 미쁘라임 (이집트)으로 옮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들과 끊어졌던 영적 흐름을 다시 연결하는 도구였습니다. 야아콥이 수레를 보는 순간 “그의 루아흐 (감성세계의 영혼)이 살아났다”는 표현은, 생명력과 거룩하신 숨결이 웃음이 끊겼던 그의 심장에 다시 수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살아있다고 전했던 말이 아버지 야아콥의 그 내면에서 정착하지 않고 살롬의 뿌리 내리는데 실패한 이유는 그 상처가 지적 영역이 아니라 존재적이며 영적 차원에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 장 26-27 절은 의도적으로 인식의 전환을 강조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는 구절 다음에는 불신이 따라 왔고, “그가 수레를 보았다”는 구절 뒤에는 회복이 따랐습니다.

미드라시는 이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보는 것으로 상처 입은 믿음은, 보는 것으로만 치유될 수 있다. 야아콥은 피 묻은 옷을 ‘보았기’에 요셉의 죽음을 믿게 되었고, 그러나 이제는 언약의 상징을 눈으로 ‘봄’으로써 그가 살아있다는 확신하며 그 생명력을 다시 받아들인다.

이러한 역사 전개 패턴은 누가복음 24 장 41-43 절에서도 유사하게 반복됩니다. 제자들은 여호수아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여호수아께서 그들 앞에서 손과 발을 보이시고 음식을 함께 먹을때에야, 먼저 생에서 알려 주셨던 부활의 가르침을 믿게 되고 회복됩니다.

일 세기의 나짜림들께서 기록하신 갱신서의 말씀은 토라의 요셉-야아콥의 기록들을 대체하지 않고, 오히려 이미 존재하던 토라의 히브리적 패턴을 그대로 메아리치며 반향합니다. 계시는 발성된 언어로 선포되지만, 신뢰는 육신으로 체험된 현존을 통해 회복됩니다.

결론적으로 창세기 45 장 26-27 절은 믿음의 회복이 정보의 축적이 아니라 연속력의 회복임을 가르칩니다. 야아콥은 요셉이 살아 있다는 사실보다, 요셉이 여전히 토라와 언약 안에 살아 있음을 보았을 때 되살아 납니다. 따라서 “야아콥의 영이 살아났다”는 선언은 개인적 기쁨의 회복이 아니라, 언약적 생명의 재점화를 의미합니다. 오늘에 있어서 창세기 45:26-27 의 구절에서는 “상실감->인식력->그리고 구속성”에대한 성경적 이해를 깊이 있게 드러내는 결정적인 역사로써, 말씀을 듣고 눈으로 확인하며 연속되며 이어진 생명력을 증거합니다.

살롬!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전 1:9-10)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십사만 사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일만 이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갓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잇사갈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일만 이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계 7:4-17)